

10년 후 우리아이 아프면... '상급병원도 답 없다'

소아청소년과 현재&미래 <하>3차병원의 위기

'소득 적고 리스크 커' 외면...광주 전공의 12명 불과해 정부, 전국 9곳 뺄질식 지원...“현장 체감 안정책 절실”

소아청소년과의 진짜 위기는 3차병원에서 일어난다. 대부분 소아 환자들의 질병은 1-2차 병원을 거쳐 해결되지만, 중증도 이상의 질환·수술의 경우 3차병원으로 전원돼 전임의(분과전문의) 이상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공의 지원이 대폭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임의로 3차

차병원에 남아 연구·수련하려는 전문의는 심각하게 드물다. 이에 현재 교수진 이외 소아 혈액종양과, 심장내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는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21일 기준 광주지역 3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남대병원 6명, 조선대병원 3명, 광주기독병원 3명에 불과하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2명을 충원했

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지원자가 전무했다. 때문에 불과 10년 후면 필수의료의 중증도 치료가 지역에서 불가능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원했을 시와 비교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야간 당직, 중환자의 생명에 대한 부담감 등에 의해 전문의가 된 직후 3차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대다수다. 특히 전공의들이 과를 선택할 때 생명과 관련된 리스크가 큰 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도드라져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과는 외면받기 일쑤다. 현재 미숙아나 중환자실의 신생아를 돌보는 일, 소아 응급실 병동, 산부인과와 동시에 당직을 서야 하는 시스템 등

은 전공의 외면 현상을 심화 시킨다. 3차병원에서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공의 3-8명이 주 60-80시간씩 일하면서 버티기 힘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공의의 부재가 지역 병원을 위축시키고 도태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영국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사례를 들어 지역 병원에서 가능한 수술도 수도권으로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토로했다. 소아 심장 전문의인 조 교수는 “최근 심장 풍선성형술이 필요한 소아 환자가 찾아왔지만 수술이 가능한 집도를 제외하고 4명의 전공의들이 모두 신생아실, 응급실, 야간당직 등으로 백업이 전

혀 불가능해 수술 후 케어와 흡식 모를 리스크를 감안해 수도권으로 전원했다”며 “전공의 부족으로 집도하지 못하고 중증도 수술을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은 지역 병원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기피 현상 타개를 위해 이미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를 조정했다. 1.3배로 조정된 수가에 의해 30% 가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올해는 50% 가산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수가 의료계 안에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여서 어려움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

목이 여간해서 없을 뿐더러 신생아 등 소아 1명당 여러명의 인력이 따라 붙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다른 필수의료 구조 해법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9개 지역 병원을 선정, 중증 소아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선정돼 2025년까지 3년간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조 교수는 “수가로만 수익 창출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장 체감’ 정책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오복기자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일부 오월 단체와의 갈등 상황 타개를 위해 공개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김애리기자

“오월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 열자”

오월정신 대책위, 부상·공로자회 등에 제안...성사 여부 미지수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시했다. 부상·공로자회·특전사동지회와 함께 ‘대국민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선행 조건과 역사적 책임 및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시민들과 열린 공간에서 얘기해보자는 것이다.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앞서 공론장의 운을 뚫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진정한 사과’란 특전사동지회가 대국민 공동선언에서 피해자를 자처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됐음을 인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다만, 대책위의 이같은 제안에 대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과 공론장을 열겠다는 것이 대책위의 의견이지 다른 기관의 뜻은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다. 부상자회는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공개 토론회를 제안할 거였으면 최소한 먼저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순서”라며 “지난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한 단체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檢, 이상철 곡성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 거역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

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은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으로 비춰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이력을 제공한 점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7일 열린다. /오복기자

경찰 지급 ‘스마트 워치’ 목숨 건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스마트 워치’ 덕에 검거됐다. 21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 B씨가 이웃집으로 피신하자 뒤를 쫓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 받아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마트 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안재영기자

무더위에 광주서 ‘벌쏘임’사고 잇따라

이달 2건...소방 “1시간 내 사망도...즉시 119 신고해야”

최근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에서 ‘벌쏘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광주에서만 2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3시20분께 동구 용산동 한 음식점 앞에서 A(60)씨가 벌에 쏘였다. 부종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오후 3시44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후 5시42분께 서구 풍암동 인근에서 산책하던 B(67·여)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B씨 모두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벌쏘임 사고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졌기 때문”이라며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긴 소매 옷을 입어 신체 부위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도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벌집과 접촉했다면 흡식 모를 벌떼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쏘인 부위를 밀어 침을 제거한 뒤 깨끗하게 씻고 소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름철엔 특히 도심 속 벌쏘임 사고가 많은데,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호기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욕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 감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롤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 감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